

(게임 캐릭터)

“카트라이더 다오·배찌와 가상현실서 놀자”

SKT, VR 생태계 판 키운다

벤처 게임사 픽셀리티게임즈와 ‘크레이지월드 VR’ 베타 테스트

의료기관과 손잡고 ‘힐링VR’도 교육기관과 교육 콘텐츠도 선보

SK텔레콤이 벤처 게임사, 의료기관, 교육 스타트업 등과 손잡고 가상현실(VR) 판 키우기에 나선다.

SK텔레콤은 VR 벤처게임회사인 픽셀리티게임즈와 함께 넥슨의 인기 캐릭터 ‘다오’와 ‘배찌’ 등이 등장하는 ‘크레이지월드VR’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신축 용인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30~40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힐링용 명상 VR 12편을 공동 제작해 SK텔레콤 ‘점프 VR’에 업로딩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에듀테크 스타트업 마블러스와 국내 처음으로 가상 현실 기반의 어학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내놨다.

‘크레이지월드 VR’는 게임사 넥슨이 ‘카트라이더’,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유명 게임속 캐릭터의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하고, SK텔레콤과 벤처게임사인 픽셀리티게임즈가 공동 투자·개발하는 삼자간 협력 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크레이지월드VR’은 한 공간에서 50명 가량이 지연없이 실시간으로 함께



게임 이용자들이 ‘오쿨러스 고’를 머리에 쓰고 ‘크레이지월드 VR’을 즐기고 있다. /SK텔레콤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HMD 기기 ‘오쿨러스 고’ 사용자는 오쿨러스 스토어에서 ‘크레이지월드 VR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베타 테스트 사용이 가능하다. 베타 테스트 기간은 2월 13일~4월 9일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진영 교수팀과 30~40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힐링VR 영상 ‘마인드풀니스’ 12편을 공동 제작해 공개 예정이다. HMD 기기를 쓰면 눈앞에 펼쳐진 자연경관과 잔잔한 배경음악, 성우의 멘트에 따라 편안한 자세로 명상을 유도한다.

또 AI기반 에듀테크 스타트업 ‘마블러스’와는 VR 기반의 어학시뮬레이션

콘텐츠 ‘스피릿’을 선보여 점프VR에 공개했다. 양사 간 파트너십은 SK텔레콤에서 일부 제작투자비를 지원하고 콘텐츠 판매 시 매출을 나누는 구조다. 이용자는 HMD를 쓰고 바로 눈 앞에 펼쳐지는 외국의 레스토랑, 공항, 회의실 등 리얼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의 영어 대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한국영화아카데미(KAF A)에서 VR 영상 제작 교육과정을 수료한 작가들의 창작물 20여 편을 ‘점프 VR’을 통해 볼 수 있다. 출시작 중 ‘바람의 기억’은 2019 시체스 영화제 상영작으로, 아픈 과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의 남녀 무용수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과거 기억에 대한 치유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U+, 약정없는 5G 무제한 요금제 출시

월 6만5000원 ‘U+Shop’서 판매 5G 스마트 요금제 비 23.5% 저렴

LG유플러스는 1인 가구 등 1인 무제한 요금만을 쓰고 싶은 고객을 위해 약정이나 결합 등 조건이 없는 무약정의 5G 무제한 요금제 ‘5G 다이렉트’를 오는 5월 31일까지 공식 온라인 쇼핑몰 ‘U+Shop’을 통해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5G 다이렉트’는 속도 제한 없이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무선 음성통화(부가통화 300분 포함), 메시지 등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약정의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다.

월 이용료는 6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으로 5G 스마트 요금제 대비 약 23.5% 저렴한 것이 강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5G 다이렉트’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1만명까지 월



1만원의 요금할인을 제공, 최저 월 5만 5000원에 5G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5G 다이렉트’ 요금제는 이달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U+Shop을 통해서만 별도의 약정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복지할인을 제외한 LTE 요금 그대로 약정할인, 결합할인 및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멤버십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나인 기자



KT 모델들이 슈퍼VR로 8K VR 스트리밍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KT

‘VR 스트리밍’, 세계 최초 8K로 즐긴다

KT 3월부터 ‘슈퍼VR’서 서비스

KT는 개인형 가상현실(VR) 서비스인 ‘슈퍼VR’를 통해 3월부터 8K VR 스트리밍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KT는 내달부터 ‘슈퍼VR위치’ 애플리케이션(앱)의 ‘8K 프리미엄’ 관을 통해 8K의 VR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KT의 5G 네트워크 기술과 실리컨밸리의 스타트업 알카르 루즈사의 ‘슈퍼스트림 솔루션’을 결합

해 개발됐다. 초고용량의 8K VR 콘텐츠를 수백개의 조각으로 분할해 클라우드에 저장 후 사용자의 시야각에 따라 실시간으로 해당 각도에 맞는 영역의 화면만 전송해 최적의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KT는 VR 콘텐츠 제작사인 아바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경복궁, 태권도 등의 한국 대표 문화재와 케이팝 등을 소재로 8K VR 콘텐츠를 제작해 올해 연말까지 약 100여편의 초고화질 VR 콘텐츠를 갖출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폴더블폰 고객은 방문서비스... 특별 대우”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엔지니어가 ‘휴대폰 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집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갤럭시 Z 플립을 건네주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디스플레이 교체 등 모든 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가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폴드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14일부터 ‘방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폴더블폰을 구매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사용 고객은 삼성전자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해 장소와 시간을 예약 후 파손 디스플레이 교체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이며 평일 1만8000원, 토요일 2만2000원의 출장비가 발생된다.

또한, 전화 걸금 및 송수신 저하 등 통화품질 불편을 겪는 고객에게도 방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은 삼성전자 휴대폰 전 기종이다.

고객이 통화품질 불편으로 서비스센터를 내방한 경우 수리 엔지니어가 제품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통화품질 불편을 겪었던 현장에 찾아가 문제 원인을 분석해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톰브라운 입힌 ‘갤럭시Z플립’ 한정판매

삼성전자 21일 韓 상륙, 279만원 갤럭시 워치액티브2, 갤럭시 버즈+ 제공

삼성전자가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한 프리미엄 패키지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사진)’을 21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은 새로운 폼팩터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에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색상과 삼색 패턴 등 절제된 스타일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UX)이 적용된 제품이다.

톰브라운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적용

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갤럭시 버즈+’도 함께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1일부터 삼성전자 홈페이지, 삼성 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강남본점·부산본점, 10프르소포모 청담점과 예비뉴얼점에서 한정 판매를 진행한다.

가격은 297만원이며, 실제 제품 배송은 3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톰브라운은 현지시간 12일 뉴욕 패션위크에서 독특한 구성의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공개 행사는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I am ready now)’라는 주제로 17명의 모델이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활용한 합동 퍼포먼스로 꾸며졌다. /구서윤 기자

“LG 스마트폰과 얽힌 미담 들려주세요”

20일까지 인스타그램 이벤트

LG전자가 LG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LG 모바일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인스타그램 ‘LG 모바일’에 LG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재미있었거나 행복했던 경험담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LG전자는 응모된 경험담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최우수작 2명에게는 LG V50S 씬큐, 우수작 10명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한예능프로그램에서 LG 스마트폰의 내구성이 화제가 된 것

을 계기로 기획됐다. 최근 유명 개그우먼 신봉선 씨가 본인이 소유한 LG 스마트폰(LG G6)을 실수로 높이 50m 다리에서 떨어뜨렸다. 하지만 제품이 크게 파손되지 않고 멀쩡히 작동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출시한 LG V10부터 군사표준 규격 MIL-STD 810G(일명 밀스펙)의 10여 개 항목을 통과한 스마트폰을 지속 선보이고 있다. 이 표준은 군 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의미로, 낙하는 물론 저온(포장상태/비포장상태), 습도, 고온(포장상태/비포장상태), 진동, 일사량, 저압, 분진, 방수, 열충격, 염수 분무, 방우 등을 테스트한다. /구서윤 기자